

부모의 음주 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권 종 선

부모의 음주 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

지도 김 선 아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권 중 선

권종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년 12월 일

감사의 글

차가운 겨울바람이 따스한 순풍으로 느껴짐은 오늘의 이 영광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석사 과정을 끝내기까지 연구의 문을 열어주시고, 힘겹지 않게 임할 수 있도록 보살피 주시고 격려와 온화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지도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 공부할 기회를 주심과 함께 관심과 격려로서 늘 의지가 되고, 따뜻한 채찍으로 논문 지도를 해주신 강규숙 교수님, 학기 중 연구세미나를 담당하셔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로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조자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석사과정 중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간호학과 교수님께,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중에도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하 동료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소리 없는 도움으로 용기를 주고, 논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친지, 친구, 후배 및 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서로 바쁜 중에도 서로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은 우리 동기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공부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희생을 감수한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가 아름다운 시기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생활 사건들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하는 극복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3. 12월
권 종 선 드림

차 례

국문요약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고찰	5
1. 문제음주 부모를 둔 자녀들의 특성	5
2. 극복력의 개념과 관련요인	9
III.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16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16
4. 연구도구	17
5. 자료분석방법	20
IV. 연구결과	22
V. 논 의	40

VI. 결론 및 제언	45
1. 결론	45
2. 제언	48
참고문헌	49
부 록	55
영문초록	72

표 차 례

〈표 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문제 분류	18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3〉 대상자들의 극복력	26
〈표 4〉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비교	27
〈표 5〉 대상자들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정도	28
〈표 6〉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주요변수 비교	29
〈표 7〉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30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극복력 비교	32
〈표 9〉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 와의 상관관계	36
〈표 10〉 일반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37
〈표 11〉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38
〈표 12〉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39

부 록

〈부록 1〉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55
〈부록 2〉 극복력 척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57
〈부록 3〉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58
〈부록 4〉 질문지	61

국 문 요 약

부모의 음주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

본 연구는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생 자녀들이 그들의 정상적 발달과업 수행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극복력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일개 도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학생 6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도구는 부모의 음주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동희(2003)의 도구를 이현화(2003)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FACESIII, 안양희, 1988), 사회적지지 척도(양국선, 2001), 자존감 척도(이현화, 2003)를 사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자료 중 미작성 자료를 제외한 546부가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결과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수는 일반가정 자녀 408명(74.7%), 과음주가정 자녀 84명(15.4%), 문제음주가정 자녀 54명(9.9%)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극복력 수준을 보면 문제음주가정 자녀

(86.18±14.90)가 일반가정 자녀(89.52±13.42), 과음주가정 자녀(87.60±14.90)보다 극복력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144$). 또한 과음주가정 자녀의 자존감은 일반가정 자녀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08$),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005$),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극복력 관련요인을 보면 일반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외의 활동유무, 학교성적, 존경하는 교사수, 부모의 학력,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의 변수들이며, 과음주가정 자녀들은 성별,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 학교성적,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의 변수들이며,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은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의 변수들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세 집단에서 모두 극복력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향상을 위한 중재로는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고, 장래에 대한 계획성을 길러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적용 및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분야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꾸준한 연구와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핵심 되는 말 : 문제음주가정 자녀, 극복력,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도한 음주는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 음주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음주자의 청소년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다. Melcher(1997)는 천만 명이나 되는 문제 음주자가 그들의 가족인 3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학조사에서도 성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22.0%-32.2%에 이르고, 알코올 의존은 4.2%-10.9%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용석, 1999). 문제음주 부모 자녀(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에 의한 조사결과 13점이상)의 비율은 김경빈(1996)의 연구에서 10.5%, 전수미(2000)의 연구에서 18.4%로 증가하고 있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가 13.1%를 차지하고,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40-64세 군에서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바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신명식, 2002). 또한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수준을 CAST에 의해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CAST-K에서 6점이상)이 43.4%로 많은 청소년이 부모의 문제음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김정득, 2003).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70-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이들의 연구는 질병모델을 근거로 한 문제음주 부모 자녀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로 대부분 치료적 접근을 강조한 연구들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부모가 있는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음주문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 불

안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며, 낮은 자존감, 역할 갈등, 공격성, 부적응 등의 병리적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Harter, 2000; Knowles & Schroeder, 1990; Jarmas & Kazak, 1992; Rodney & Rodney, 1996; 손영균, 1993; 이정숙, 1994), 가족 중에 문제 음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하여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드물고 가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녀의 발달과업을 방해한다고 하였다(Robinson & Rhoden, 1998).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들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Palmer(1997)는 성인이 된 알코올중독 자녀가 모두 병리적 문제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진 극복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적응수준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Harter(2000)는 일반 가정의 자녀와 알코올중독 자녀의 극복력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중독 자녀들에게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극복력이 있다고 하였다. Polk(1997)는 역경이나 재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극복력이라 정의하였으며, Krauss(1993)는 극복력은 환경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이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유능감, 스스로를 지지하는 능력, 적절한 지적 능력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극복력이란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회복력, 극복력, 적응 유연성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간호학에서도 질병예방이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극복력 개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임숙빈 외, 2002). 그동안 우리나라 문제음주자의 자녀에 대한 연구는 질병중심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장수미(2001)는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우려면 개인이 가진 극복력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 시켜

주는 예방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화(2003)연구와 김정득(2003)의 연구가 있지만 아직 극복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적응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극복력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빈곤가정의 자녀, 실직가정의 자녀, 결혼가정의 자녀, 중퇴경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극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라 극복력 수준을 비교하고, 극복력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교 자녀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사회 병리적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그들의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긍정적 요소인 극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극복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음주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수준을 파악한다.
- 2) 부모의 음주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를 파악한다.
- 3)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부모의 음주정도

부모의 음주정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를 의미하며(18쪽, 표1),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영적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을 말한다(Dayley & Marlatt, 1997).

본 연구에서는 Jones(1981)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1995)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마친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13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음주가정 자녀집단, 6점 이상 12점 이하인 경우를 과음주가정 자녀집단, 5점 이하를 일반가정 자녀집단으로 분류한 세 집단을 의미한다.

2) 극복력

극복력은 모든 인간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회복하여 스트레스 이전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다(Gamezy, 1993).

본 연구에서는 김동희(2002)가 개발한 만성 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를 일반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이현화(2003)가 사용한 극복력 측정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문제음주 부모를 둔 자녀들의 특성

음주문제(alcohol problem) 정의에는 알코올리즘(alcoholism), 알코올 중독(alcohol addiction),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및 폭음(binge drinking)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Hester & Miller, 1995). 미 정신의학 협회(1994)가 문제음주 진단을 위해 만든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에서는 문제성 음주행동을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명명하고, 내성, 금단증상, 또는 강박적 행동의 유무에 따라 알코올의존과 알코올남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학연구소(1990)의 분류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알코올의존, 알코올남용 및 문제음주로 정의하고 있다. 알코올의존은 내성이나 금단증상과 같은 신체적 결과나 통제력상실이나 갈망과 같은 심리적 결과 때문에 금주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알코올남용은 사회적 기능은 손상되었지만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강박적 충동이 아직은 주된 문제가 아닌 상태로 정의된다. 문제음주는 폭음, 의존증상, 음주관련 사회적 결과 등에 의해 측정되어지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유채영, 2000 재인용).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과 같은 문제음주는 중독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음주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의 질병으로 여겨야 한다(Wormer, 1989). 문제음주 가정의 가족들은 혼돈, 불일치, 불명확한 역할, 불예측성, 반복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다툼, 폭력과 강간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부부갈등, 가정폭력, 자녀와의 갈등 등 음주로

인한 가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외, 1995).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임상적 특성으로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 가정에서 성인으로서 역할수행을 못하여 자녀와 부모의 역할 전도로 자녀들이 가족의 기능수행에 참여하게 되고 청소년 발달단계를 뛰어넘어 성인 역할을 하므로서 정상적 발달단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만성적 분노,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대인관계상에서도 고립되고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외부도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기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Subby, 1884; Potter, 1991; Reiser, 1997; Bardis, 1996; 박현선, 이상현, 2001).

Olson, Russell, Sprenkle(1983)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가족체제에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가족체제의 감정적, 정서적 차원을 나타내는 개념을 가족 결속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가족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소야자 등(1989)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환자 군의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이 일반가정보다 낮음을 보고하였고, 조항석 등(1994)도 가정 내 상습 음주자가 있는 경우와 알코올 중독의 경우가 심할수록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이 대조군에 비해 낮음을 보고했다. 이정숙(1994)의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의 가족 결속력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상현(1996)은 알코올 문제가정의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에 따라 청소년기의 내적 적응결과인 우울과 불안, 외적 적응인 비행에 유의한 차이를 있음을 보고 하였다.

박현선과 이상균(2001)은 일반 중 고등학생 641명과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청소년 자녀 125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보이는

성인아이 성향이 심리사회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성인아이 성향(미성숙한 자아상)은 가족결속력과 부모의 문제음주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민은정(2001)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자녀의 적응 연구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심할수록 가족기능은 낮았고,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이 대처능력이 낮고, 가족결속력도 낮게 지각했다.

이상의 문헌에서 보듯이 문제음주 가정의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은 일반가정보다 낮았으며, 자녀들의 적응에도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정의를 보면 홍근표(1984)는 사회 체제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이라 하였으며, Caplan(1974)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이라 하였으며, Sarason과 Sarason(1982)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고, 건강행위를 실천하게 하며, 대인관계의 친밀성으로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했다(김미향 외, 2000).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으로 지지 보호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지지망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음주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정숙(1994)은 문제성음주 부모의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성음주 부모의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보고했고, 부모의 문제음주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다른 적응변인에 더 영향력이 있음으로 보고했다. Turnbull(1995)은 자조집단에서 수행되는 12단계프로그램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도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망 형성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Bardis(1996)는 알코올 중독자의 학령기 아동자녀들이 물질남용자가 되거나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보고했다. Delmonico(1997)는 문제음주부모의 자녀가 높은 사회적지지 자원이 있고 회피대처기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은정(1998)은 알코올문제 가정의 성인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가정 자녀들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자(1998)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이 일반가족보다 낮은 사회적지지망을 갖고 있으며, 가족의 공동의 존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봉은주(2001)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담감과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음주가정의 사회적 지지는 일반가정보다 낮으며, 높은 사회적 지지는 문제음주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더 긍정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이정숙(1994)은 문제성 음주 부모의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음주부모의 자녀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문제성음주가 자존감의 위협요인으로 보고했다. Tomori(1994)는 문제음주 부모를 가진 12-19세의 청소년63명과 대조군 3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음주 부모를 가진 군이 대조군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것으로 보고했다. 유채영(2000)은 가족형 문제음주군과 비가족형 문제음주군의 연구에서 가족형 문제음주군이 비가족형 문제음주군보다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장수미(1992)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를 대상으로 자존감 고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본 결과 자존감은 교육을 통해 키워줄 수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정보적 지지는 자녀의 정상적 발달과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현화(200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녀들의 극복

력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음주가정의 극복력 관련요인은 자존감과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은 극복력을 45.1% 설명하는 예측요인으로 밝혔다. 김정득(2003)의 연구에서도 문제성 음주부모의 청소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고 신념체계영역에서 독립성과 위기대처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의 수준이 높음을 보고했다. Dumont와 Provost(1999)는 14세의 청소년 297명과 17세의 청소년 156명을 대상으로 극복력에 관한 연구 결과 자존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소로서 제시되었고, 만족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은 그들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자존감이 형성되며,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였을 때 그들의 자존감은 낮음을 보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소로서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극복력의 개념과 관련요인

1) 극복력의 개념과 관련요인

극복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 후 본래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능력,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Webster, 2003), 질병,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힘(Oxford, 2001)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극복력의 개념은 그 사용에 있어 일치할 못하고 회복력(김혜성, 1998; 이인숙 외, 2002), 복원력(전미영, 1996), 탄력성(김미옥, 2000), 적응유연성(박현선, 1999), 유연성(서지영, 2002), 극복력(김동희, 2002; 이현화, 2003)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심리 사회적 능력이 강조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단어 ‘극복력’으로 사용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극복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Fine(1991)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역경에서 견디어내는 심리 사회적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Luthar(1991)도 유아기의 극복력에 대한 연구 분석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Garmezy(1993)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기전의 적응양상이나 효능감을 가진 상태로 회복하는 힘과 능력으로 부적응의 위험을 중재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Heinzer(1995)는 상실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표현하였다. 김혜성(1998)은 척추손상 환자의 극복력에 관한 연구에서 극복력은 역경 하에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 감소되며,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하에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강인성, 응집감, 자아강도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재정의 하였다.

Rutter(1987)는 역경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이 취약성과 극복성의 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극복의 과정을 충격을 감소시키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과정, 안전하고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과정,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Dyer와 McGuinness(1996)는 역경을 극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극복력이란 개인이 지닌 긍정적 잠재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 하에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변화 이전의 상태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극복력과 관련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mshoff와 Price(1999)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예방과 중재 전략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적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차원으로는 활동수준, 반응, 인지적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하였고, 가족차원으로는 애정, 결속력, 보살피주는 어른의 존재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으로는 선생님, 이웃, 친구의 부모와 같은 외적지지, 학교나 교회와 같은 조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Olsson 등(2003)은 1990-2000년 사이의 12-18세 청소년의 극복력 연구문헌을 살펴보면서 극복력의 관련요소를 설명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 긍정적 기질, 사회성, 지성, 의사소통능력, 자존감, 내적 통제위 등을 들 수 있고, 가족적 요인으로 가족지지, 가족결속력, 자녀에 대한 신뢰, 배우자지지등을,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경제적 수준, 친구지지, 선생님지지, 성공경험, 지역 사회의 지지 등으로 설명하였다.

극복력은 개인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완충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와 감정적이거나 행동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으며, 위험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으로 반응하며, 개인의 적응반응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적응적 반응은 기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대처 뿐 아니라 계획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낙천성과 같은 개인적인 속성, 신념, 지위 상 특징들이 가족과 가족 외부자원과 상호 작용하여 극복력에 기여한다(최윤정과 김혜련, 2001). Werner(1986)는 문제음주부모의 자녀에 대한 출생에서 18세까지의 종단연구에서 41%가 심각한 적응문제들을 경험하였지만 59%는 그러한 문제없이 잘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극복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타인에게 긍정적 관심을 얻는 능력,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보통수준의 지능, 보호적 태도, 성취욕, 자조감에 대한 신념을 제시하였다.

극복력이 높은 아동의 특징을 보면 학업수준이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이 뛰어나며, 내적 통제위와 자기 통제력이 높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동원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 협동적이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들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Luthar, 1991; Werner, 1993; Cicchetti et al, 1993; Egeland, Calson & Sroufe, 1993; Holaday & Terell, 1994; Mandlco & peery, 2000; 최윤정과 김혜련, 2001). 이외에도 극복력에 관련된 요인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더 취약하고, 어려움에 노출된 기간, 형제수, 조부모의 존재, 안정적 양육환경, 종교,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외의 활동에 참여를 할 때, 흥미와 관심분야의 능력이 뛰어날 때, 또한 가족은 아니지만 중요한 지지원으로 또래나 영향력 있는 성인모델 적어도 한사람 이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극복력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Wolff, 1995; Gamezy, 1993; Gilligan, 1999; Mandlco & peery, 2000; 김동희, 2002).

Dumont와 Provost(1999)는 극복력이 있는 청소년은 내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이 높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다. Schaefer와 Moos(1992)는 극복력을 강화시키려면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통찰력이나 자립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을 강화시키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했다.

Tubman(1993)과 민은정 등(2001)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에 따라 우울, 자존감, 대인관계의 문제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족지지, 응집력, 전반적 갈등과 같은 가족 기능의 정도에 따라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양국선(2001)은 중퇴 청소년의 극복력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에서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교사지지, 책임감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또래 지지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저 적응 집단은 결손가정,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발달적 위험 등 환경적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고 적응 집단은 낮은 충동성, 책임감과 효능감 등 개인자원이 많았고, 교사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지각

정도가 높았다. 박현선(1998)은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 위협요소가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떨어지고, 보호요소가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요소로는 우울/포기 성향, 충동/공격 성향, 가족갈등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요소로는 책임감과 계획성과 같은 개인요소와 민주적 양육태도, 민주적 학교분위기,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적 청소년은 실직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정의 했다.

윤채봉(2000)은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학교적응도 잘 한다고 했다.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친구와 교사의 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희(2002)는 극복력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마다 다른 변수를 가지고 측정하여 개념의 통일성이 결여 되었다고 하면서 만성질환아를 대상으로 극복력 측정도구를 개발했는데 3개의 하부 개념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긍정적 자기이해에는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신감, 낙천성을 포함하며, 대처양상 특성으로 자율성, 통제감, 도전성, 계획성, 인내심의 내용을 포함한 자립성과 자원 동원성, 대인관계 특성으로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및 친밀성을 측정한다. 이상의 문헌에서 보듯이 극복력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개인적 요소와 가족요소와 사회 환경적 요소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동희의 극복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극복력을 측정하고, 관련변수는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자존감, 사회적지지로 극복력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2)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녀들의 극복력

장수미(2001)는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가족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역경과 고통을 겪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역경에 잘 대처하도록 하는 가족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을 가족간의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 교회와 생활 보호연결 등의 사회적지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머의 사용, 어머니를 대신한 가장으로서 형의 역할수행, 가족성원간의 개방적 정서표현 및 고유, 가족구성원 개인의 적응유연성, 가족주의가치관과 장자의 책임, 어머니의 독립성과 희생정신 등으로 보았다. Hussong과 Chassin(1994)은 문제성 음주부모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약물사용과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한 가족 조직과 행동적 대처노력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약물을 접할 기회가 낮았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통제능력, 대처능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Averno(1999)는 모든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부모의 문제음주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almer(1997)는 성인이 된 알코올중독 자녀가 모두 병리적 문제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진 극복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적응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Harter(2000)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알코올중독자녀의 극복력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 중독 자녀들에게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극복력이 있다고 하였다. Delmonico(1997)는 문제음주부모의 자녀가 용기가 적고 회피대처를 많이 하고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요소로 인해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했으며, 그러나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원이 있고 용기가 많고 회피대처기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가 그들의 문제음주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Zvirbulis(1999)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극복되는 데 있어 자존감,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정득(2003)은 문제성 음주부모의 자녀의 극복력 연구에서 문제음주가정에 속하면서 극복력이 높은 집단은 자존감이 높고, 신념체계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화(200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극복력의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비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보다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극복력 수준을 높여주는 보호요인을 자존감,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또래지지와 교사지지로 보고했다. 이상의 문헌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문제음주는 자녀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극복력을 낮출 수 있으며, 자존감과 사회적지지 및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달과업 수행과 적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였고, 이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극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정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극복력의 관련요인과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예측적 상관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문제음주 부모를 둔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근접 모집단은 2003년 10월 현재 경기도 일개 도시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편의 추출하여 각 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여 학생 중 인문계 고등학생 400명, 실업계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 1) 연구시행 가능성 여부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40명을 편의 추출하여 9월 10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9월 20일에서 10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은 편의 추출된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과 보건교사 및 담당 과목교사에게 연구의도와 수집방법을 설명한 후 보건교사와 담당과목 교사를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 12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5개 학급에 들어가 학

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회수하도록 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30분이며, 회수율은 600부 중 570부로 이중 미완성된 24부를 제외한 546부가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며,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30문항, 극복력 측정 31문항,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FACES III) 20문항, 자존감 측정 10문항, 사회적지지 측정 18문항, 일반적 특성 16문항으로 총 1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도구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Jones(1981)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에 의해 한국에 맞게 검증된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로 부모의 음주에 대한 아동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명의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는 7개 영역으로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부모간의 음주와 관련된 가정불화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음주를 조절하려는 시도, 알코올리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노력,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됨, 부모를 알코올 중독자로 지각하는 경향,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 있고, '예'로 대답한 1문항에 1점씩 총 6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자 자녀로 판별할 수 있다

고 하였으나, 국내 알코올중독자 자녀에서는 평균 13-16점이 해당된다고 한다 (전수미, 2000). 본 연구에서는 <표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문제 분류(김미례, 1994; 이현화, 2003 재인용)를 적용하여 5점 이하를 사회적 음주와 비음주를 포함한 일반가정 자녀, 6-12점을 과음주가정 자녀, 13점 이상을 문제음주가정 자녀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 alpha는 0.98이었고,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의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0.94이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화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가 0.927이었고, 본연구의 Cronbach alpha = 0.928 이었다.

<표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문제 분류

음주 수준	기준점수	음주 정도
비음주 부모 (non drinker)	0~1 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자녀들에게도 술에 관련된 걱정을 전혀 끼쳐주지 않는 경우
사회적 음주 부모 (Social drinker)	2~5점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별 걱정을 주지 않는 경우
과 음주 부모 (heavy drinker)	6~12점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인 경우
문제 음주 부모 (problem drinker)	13점 이상	술을 너무 좋아해 술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정도로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인 경우

2) 극복력 척도

김동희(2002)의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 총 32문항중 이현화(2003)가 만성질환아와 관계된 6개 문항을 청소년의 극복력의 하부개념에 맞게 5문항은 수정하고 1문항을 삭제하여 31문항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부개

넘인 개인내적 특성(긍정적 자기이해 10문항), 대처양상 특성(자립성 10문항, 자원동원성 2문항), 대인관계 특성(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4문항, 친밀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동희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가 0.91이었으며, 이현화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가 0.93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0.937 이었다.

3)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 III)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일련의 FACES중 세 번에 걸쳐 수정된 개정판으로 Olson, Ponter, Lavee(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안양희(198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응력 10개의 짝수문항과 결속력 10개의 홀수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거의 안그렇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 alpha가 0.6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 alpha = 0.893 이었다.

4) 사회적지지 척도

Kahn과 Antonucci(1980)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Affect), 긍정(affirmation), 도움(aid)의 3가지영역으로 규정한 것을 기반으로 Abbey, Abramis, Caplan(1985)이 고안한 6개의 문항을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과 양국선(200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가족, 친구, 교사)에게서 받는 지지를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여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0.877 이었다.

5)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의 도구를 김선희(1987)가 번안하고 이현화(2003)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2번, 5번, 6번, 8번, 9번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선희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는 0.84이었다. 이현화(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0.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0.797 이었다.

6)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상자의 성별, 계열, 학년, 종교, 형제순위, 가족구조, 흥미 관심분야 및 학교생활 외 활동, 조부모 동거여부, 성적, 친한 친구수, 존경하는 교사 수,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술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내용으로 한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하였다.
- 2) 대상자의 극복력,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 자존감은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극복력 수준,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 자존감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과의 관련요인은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을 설명하는 주요 관련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음주 정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3.3%(291명), 여학생이 46.7%(255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9.3%(269명), 2학년이 50.6%(277명)이었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65.9%(360명), 실업계가 34.1%(186명)이었다. 61.6%(335명)의 대상자들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흥미와 관심분야가 있는 학생이 87.4%(477명), 흥미와 관심분야가 없다고 답한 학생이 12.6%(6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외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43.6%(238명),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56.4%(308명)이었다. 학교성적은 1등에서 10등이 34.1%(186명), 11등에서 20등이 32.4%(177명), 21등에서 30등이 22.1%(121명) 31등 이하가 11.4%(62명)이었다. 친한 친구 수는 3명 이상으로 답한 학생이 66.7%(364명)로 가장 많았고, 1-2명이 24.7%(135명), 없다고 답한 학생도 8.6%(47명)이었다. 존경하는 교사수는 1-2명이 43.6%(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29.7%), 없다(26.7%)순이었다.

조부모와 동거 여부는 외조부모를 포함하여 한분이라도 동거하는 경우가 12.6%(69명), 동거 안하는 경우가 87.4%(477명)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일반가정이 89.2%(486명), 이혼, 사망으로 한분만 계시는 결손가정이 10.8%(59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48.2%(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업이상(42.2%), 중학교졸업이하(9.6%)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도 고등학교졸업이 56%(302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업이상(25.8%), 중학교졸업이하(18.2%)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가 47.9%(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관리직이상(28.6%), 사무직(21.8%), 무직(1.7%)순이었다. 45.6%(244명)의 대상자들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달 가정수입은 301만원이상이 36.3%(198명), 101만원-200만원이 28.8%(157명), 201만원-300만원이 24.9%(136명), 100만원이하가 10.1%(55명)이었다.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6
특 성	구 분	빈 도	%	
성별	남자	291	53.3	
	여자	255	46.7	
학년	1학년	269	49.3	
	2학년	277	50.7	
계열	인문계	360	65.9	
	실업계	186	34.1	
종교	있음	335	61.6	
	없음	209	38.4	
형제 순위	외동	76	13.8	
	장남, 장녀	235	43.1	
	장남, 장녀 아님	235	43.1	
흥미와 관심분야	있음	477	87.4	
	없음	69	12.6	
학교외 특별활동	있음	238	43.6	
	없음	308	56.4	

주 : 무응답자 수 제외

<표2> 계속

N=546

특 성	구 분	빈 도	%
학교성적	1-10등	186	34.1
	11-20등	177	32.4
	21-30등	121	22.1
	31등 이하	62	11.4
친한 친구수	없음	47	8.6
	1-2명	135	24.7
	3명 이상	364	66.7
존경하는 교사수	없음	146	26.7
	1-2명	238	43.6
	3명이상	162	29.7
조부모 동거여부	한분이라도 동거	69	12.6
	동거 안함	477	87.4
가족구조	일반가정	486	89.2
	결손가정	59	10.8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51	9.6
	고등학교 졸업	255	48.2
	전문대 졸업이상	223	42.2
어머니의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98	18.2
	고등학교 졸업	302	56.0
	전문대 졸업 이상	139	25.8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51	28.6
	사무직	115	21.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253	47.9
	무직	9	1.7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35	6.5
	사무직	47	8.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210	39.2
	전업주부	244	45.6
한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55	10.1
	101만원-200만원	157	28.8
	201만원-300만원	136	24.9
	301만원 이상	198	36.3

주 : 무응답자 수 제외

2)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비교

전체 대상자들을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 자녀 선별검사(CAST-K)를 통해 5점 이하를 일반가정 자녀, 6점 이상 12점 이하를 과음주가정 자녀, 13점 이상을 문제음주가정 자녀,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결과는 일반가정 자녀 408명(74.7%), 과음주가정 자녀 84명(15.4%), 문제음주가정 자녀 54명(9.9%)로 나타났다. 이들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부록1).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제음주가정 자녀 중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가정의 비율도 높았으며, 세 집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직업, 한달수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고등학생자녀의 극복력과 주요변수

1) 대상자들의 극복력

대상자들의 극복력은 31-124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88.90(SD:13.41)이었다. 극복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인 개인내적 특성(긍정적 자기이해), 대처양상 특성(자립성과 자원동원성), 대인관계특성(긍정적 가족관계 이해, 친밀성)의 평균은 <표3>과 같다.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인관계 특성이 2.96(SD:0.49)로 가장 높으며, 개인내적 특성(2.90±0.53), 대처양상 특성(2.77±0.45)순으로 나타났다. 요소별로 보면 1-4범위에 있으며, 친밀성(2.99±0.54), 자원동원성(2.97±0.59),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2.91±0.59), 긍정적 자기이해(2.90±0.53), 자립성(2.73±0.47) 순으로 나타났다. 극복력 척도 문항별 점수는 <부록2>과 같다. 총 31문항 중 점수가 높은 항목은 친밀성 항목에 속하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명은 있다’(3.30±0.74)가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자기이해 항목인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3.19±0.70), ‘나

<표3> 대상자들의 극복력

N=546

특 성	하부요소(문항)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평점±표준편차
개인 내적 특성		29.06±5.35	10-40	2.90±0.53
	긍정적 자기이해(10)	29.06±5.35	10-40	2.90±0.53
대처양상 특성		16.27±2.88	6-24	2.77±0.45
	자립성(10)	27.28±4.74	10-40	2.73±0.47
	자원동원성(2)	5.94±1.19	2-8	2.97±0.59
대인관계 특성		26.63±4.45	9-36	2.96±0.49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4)	11.65±2.38	4-16	2.91±0.59
	친밀성(5)	14.98±2.70	5-20	2.99±0.54
총점		88.90±13.41	31-124	2.87±0.43

는 중요한 사람이다'(3.17±0.75),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항목인 '부모님께 늘 감사 한다'(3.16±0.7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항목은 자립성 항목으로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 한다'(2.37±0.75),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 한다'(2.57±0.71),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 한다'(2.59±0.73)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2.60±0.79)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선별검사에 의해 분류한 일반가정 자녀, 과음주가정 자녀,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을 보면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평균은 86.18(SD:14.90)로 과음주가정 자녀(87.60±14.90), 일반가정 자녀

(89.52±13.42)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144). 특성별로 보면 ‘개인 내적 특성’은 일반가정 자녀(29.37±5.23), 과음주가정 자녀(28.60±5.32), 문제음주가정 자녀(27.26±5.9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7).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문제음주가정 자녀(p=.024)로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개인내적 특성’ 점수가 2.11점 낮았다. 또한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요소도 일반가정 자녀(11.79±2.28), 과음주가정 자녀(11.44±2.60), 문제음주가정 자녀(10.96±2.6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37).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처양상 특성에서 보면 ‘자립성’ 요소는 과음주가정 자녀(26.82±4.18)보다 문제음주가정 자녀(27.30±5.27)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원동원성은 문제음주가정의 자녀(5.98±1.39)가 일반가정 자녀(5.94±1.17)와 과음주가정 자녀(5.89±1.17)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4).

<표4>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비교

극복력 하부요소	일반가정의 자녀 (n=408)	과음주가정의 자녀 (n=84)	문제음주가정의 자녀 (n=54)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극복력(총점)	89.52±13.42	87.60±14.90	86.18±14.90	1.944	.144
긍정적 자기이해	29.37±5.23	28.60±5.32	27.26±5.94	4.108	.017
자립성	27.38±4.77	26.82±4.18	27.30±5.27	.475	.622
자원동원성	5.94±1.17	5.89±1.17	5.98±1.39	.095	.909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11.79±2.28	11.44±2.60	10.96±2.65	3.309	.037
친밀성	15.04±2.70	14.84±2.63	14.68±2.81	.532	.588

3) 대상자들의 주요변수

대상자들의 주요변수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 부모의 슬문제로 인해 지각되어지는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5>와 같다.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20-97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54.20±13.80이었고 가족적응력은 24.64±7.23, 가족 결속력은 29.56±7.72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20-72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54.32±7.66 이었고, 가족지지는 19.19±3.38, 친구지지는 19.32±2.85, 교사지지는 15.81±3.97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10-40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25.97±4.32 이었다. 스트레스 정도는 0-10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2.32±3.06 이었다.

4)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주요변수 비교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세 집단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의 평균은 일반가정 자녀 55.31(SD:13.85), 과음주가정 자녀 51.49(SD:14.14), 문제음주가정 자녀 50.15(SD:11.5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표5> 대상자들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정도

N=546

변 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54.20±13.80	20	97	20-97
사회적지지	54.32±7.66	20	72	20-72
자존감	25.97±4.32	10	40	10-40
스트레스 정도	2.32±3.06	0	10	0-10

Scheffé test 로 사후검정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문제음주가정 자녀($p=.034$)로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이 일반가정 자녀보다 5.16점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50$). 자존감의 평균은 일반가정 자녀 26.31(SD:4.16), 과음주가정 자녀 24.92(SD:4.52), 문제음주가정 자녀 25.11(SD:4.8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8$), Scheffé test 로 사후검정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과음주가정 자녀($p=.027$)로 과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1.39점 낮았다. 스트레스 정도의 평균은 일반가정 자녀 1.60(SD:2.67), 과음주가정 자녀 3.75(SD:2.84), 문제음주가정 자녀 5.56(SD:3.3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 Scheffé test 로 사후검정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과음주가정 자녀($p=.000$), 일반가정 자녀와 문제음주가정 자녀($p=.000$), 과음주가정 자녀와 문제음주가정 자녀($p=.001$)로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는 일반가정 자녀보다는 3.96점, 과음주가정 자녀보다 1.81점 높게 나타났다.

<표6>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주요변수 비교

변 수	일반가정의 자녀 (n=408)	과음주가정의 자녀 (n=84)	문제음주가정의 자녀 (n=54)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55.31±13.85	51.49±14.14	50.15±11.51	5.348	.005
사회적 지지	54.62±7.81	53.74±7.27	52.98±7.07	1.389	.250
자존감	26.31±4.16	24.92±4.52	25.11±4.84	4.868	.008
스트레스정도	1.60±2.67	3.75±2.84	5.56±3.31	62.168	.000

3.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

1) 대상자들의 극복력 관련요인

대상자들의 극복력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과의 상관관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를 보았다.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7>과 같다. 가족적응력과 결속력($r=.402$), 사회적 지지($r=.411$)는 보통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존감($r=.64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정도($r=-.141$)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적응력과 결속력($p<.01$), 사회적지지($p<.01$), 자존감($p<.01$)이 높을수록 극복력은 높았으며, 스트레스정도($p<.01$)가 높을수록 극복력은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극복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8>과 같다. 성별($p=.018$), 계열($p=.000$), 종교($p=.048$), 흥미와 관심분야 유무($p=.030$), 학교외의 특별활동 유무($p=.000$), 학교성적($p=.000$), 친한 친구수($p=.021$), 존경하는 교사수($p=.001$), 가족구조($p=.043$), 아버지의 학력($p=.000$), 어머니의 학력($p=.000$), 가정수입($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90.17 ± 13.74)가 여자(87.45 ± 12.89)보다, 인문계(90.71 ± 12.47)가 실업계(85.39 ± 14.44)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5.39 ± 14.44)가 없는 경우(87.46 ± 14.11)보다, 흥미와 관심분야가 있는

<표7>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정도
극복력	.402**	.411**	.641**	-.141**

** $p<.01$

경우(98.48±12.77)가 없는 경우(84.84±16.73)보다 학교외 활동을 하는 경우(91.27±13.86)가 하지 않는 경우(87.07±12.77)보다 일반가정(89.39±12.99)이 결손가정(84.91±16.05)보다 극복력이 높았다. 학교성적은 Scheffé test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1등-10등과 21등-30(p=.001), 1등-10등과 31등이상(p=.037)로 성적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으며, 친한 친구수와 존경하는 교사수는 Scheffé test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친구가 없는 경우와 3명이상인 경우(p=.035)로 친구가 많을수록 극복력이 높았다. 존경하는 교사수가 없는 경우와 1-2명(p=.046), 없는 경우와 3명이상인 경우(p=.001)로 존경하는 교사수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극복력이 높았다. 아버지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한달 가정수입은 Scheffé test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이상(p=.001), 중학교졸업이하와 전문대졸업이상(p=.010)로 전문대졸업이상인 경우가 극복력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이상(p=.003), 중학교졸업이하와 전문대졸업이상(p=.000)로 전문대졸업이상인 경우가 극복력이 높았으며, 한달 가정수입은 301만원이상과 100만원이하(p=.011), 301만원이상과 101만원-200만원(p=.001), 101만원-200만원과 201만원-300만원(p=.033)로 가정수입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다. 형제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부모의 직업에 따른 극복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요인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세집단의 극복력과 주요변수와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부록3>와 같다.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은 흥미와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88.1±13.2)가 없는 경우(67.2±19.0)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

<표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극복력 비교

N=546

특 성	구 분	빈 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290	90.17±13.74	2.371	.018
	여자	255	87.45±12.89		
학년	1학년	268	88.88±13.46	-0.022	.982
	2학년	277	88.90±13.38		
계열	인문계	360	90.71±12.47	4.476	.000
	실업계	186	85.39±14.44		
종교	있음	333	89.80±12.94	1.979	.048
	없음	209	87.46±14.11		
형제 순위	외동	76	88.90±14.27	0.124	.883
	장남, 장녀	234	88.58±11.60		
	장남, 장녀 아님	235	89.20±14.77		
흥미와 관심분야	있음	476	89.48±12.77	-2.215	.030
	없음	69	84.84±16.73		
학교활동외 활동	있음	237	91.27±13.86	-3.672	.000
	없음	308	87.07±12.77		
학교성적	1-10등	186	91.97±13.86	6.428	.000
	11-20등	177	88.69±12.30		
	21-30등	120	85.76±13.54		
	31등 이하	62	86.30±13.06		
친한 친구수	없음	47	87±15.42	3.907	.021
	1-2명	135	86.52±13.44		
	3명 이상	363	90.02±13.00		
존경하는 교사수	없음	146	85.68±12.95	7.268	.001
	1-2명	238	89.15±13.30		
	3명 이상	161	91.42±13.44		
조부모 동거여부	한분이라도 동거	69	91.22±15.06	-1.540	.124
	동거 안함	476	88.56±13.13		
가족구조	일반가정	485	89.39±12.99	2.063	.043
	결손가정	59	84.91±16.05		

주 : 무응답자수 제외

<표8> 계속

N=546					
특 성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51	85.78±11.52	8.825	.000
	고등학교 졸업	254	87.50±13.89		
	전문대 졸업이상	223	91.97±12.52		
어머니의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98	85.86±14.40	8.912	.000
	고등학교 졸업	301	88.13±12.78		
	전문대 졸업 이상	139	92.71±13.19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51	90.49±14.09	1.619	.184
	사무직	115	90.55±11.9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252	87.95±13.47		
	무직	9	88.66±9.89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35	91.08±16.53	1.345	.259
	사무직	47	88.68±13.43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210	87.66±12.43		
	전업주부	243	89.88±13.64		
한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55	84.90±13.78	8.140	.000
	101만원-200만원	156	85.67±12.86		
	201만원-300만원	136	90.24±13.13		
	301만원 이상	198	88.89±13.40		

주 : 무응답자수 제외

남자가 여자보다, 2학년이 1학년보다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장남 장녀가 다른 형제보다, 학교외 활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가 3명이상 인경우가 1-2명인 경우보다, 존경하는 교사수가 1-2명인경우가 없거나 3명이상인 경우보다,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경우보다, 일반가정이 결손가정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이 중학교졸업이하와 전문대졸업이상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중학교졸업이하가 고등학교졸업이상보다, 아버지의 직업이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가 다른 직종보다,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이상이 다른 경우보다, 한달 가정수입이 201만원-300만원 인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극복력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은 성별($p=.038$)과 계열($p=.009$), 관심분야($p=.032$)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90.1 ± 12.5)가 여자(84.7 ± 11.1)보다, 인문계(90.0 ± 11.9)가 실업계(82.7 ± 11.3)보다,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88.8 ± 11.6)가 없는 경우(81.0 ± 13.0)보다 극복력이 높았다. 학교성적($p=.022$)은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 결과 1등-10등인 경우와 31등이하인 경우($p=.025$)로 1등-10등인 경우가 31등이하인 경우보다 극복력이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p=.001$)은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중학교졸업이하와 전문대졸업이상($p=.030$),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이상($p=.002$)로 전문대졸업이상인 경우가 유의하게 극복력이 높았으며, 이외의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계열($p=.009$), 학교생활의 특별활동 ($p=.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계(90.8 ± 12.7)가 실업계(86.6 ± 14.5)보다, 학교생활의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92.0 ± 13.7)가 안하는 경우(87.7 ± 12.9)보다 극복력이 높았으며, 학교성적($p=.001$)은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결과 1-10등군과 21-30등군($p=.002$)로 1-10등군이 21-30등군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존경하는 교사수($p=.001$)는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3명이상과 없는 경우($p=.01$)로 존경하는 교사수가 많을수록 없는 경우보다 극복력이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p=.005$)는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 이상($p=.010$)로 전문대졸업이상이 고등학교졸업보다 극복력이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p=.000$)은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중학교졸업이하와 전문대졸업이상($p=.002$),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이상($p=.003$)으로 전문대졸업이상이 다른

군보다 극복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달 가정수입($p=.000$)은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학년, 종교, 형제순위, 흥미와 관심분야, 조부모 동거 여부, 가족구조,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집단의 극복력과 관련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은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 과음주가정 자녀들은 성별, 계열, 흥미와 관심분야, 학교성적, 일반가정 자녀들은 계열, 학교생활의 활동유무, 학교성적, 존경하는 교사수, 부모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표9>와 같다.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은 가족적응력과 결속력($r=.408$), 사회적지지($r=.408$)은 보통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중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으며, 자존감($r=.644$)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r=-.135$)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과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은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r=.357$)과 사회적지지($r=.474$)는 보통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으나,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지는($r=.1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존감($r=.675$)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r=-.247$)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p<.05$),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낮았다.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은 가족적응력($r=.381$), 가족지지($r=.399$)는 보통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적응력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결속력($r=.287$)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5$) 가족

결속력이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다. 자존감은($r=.581$)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1$)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 점수가 높았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와 스트레스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변 수	극 복 력		
	일반가정 자녀 (n=408)	과음주가정 자녀 (n=84)	문제음주가정 자녀 (n=54)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0.408**	0.357**	0.371**
가족적응력	0.346**	0.329**	0.381**
가족 결속력	0.403**	0.330**	0.287*
사회적 지지	0.408**	0.474**	0.323*
가족지지	0.368**	0.517**	0.399**
친구지지	0.345**	0.355**	0.081
교사지지	0.238**	0.190	0.164
자존감	0.644**	0.675**	0.581**
스트레스 정도	-0.135**	-0.247*	0.133

** $p<0.01$, * $p<0.05$

3) 일반가정, 과음주가정,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설명요인

①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설명요인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관련변수인 스트레스 정도(=.000), 가족적응력(p=.000), 가족결속력(p=.000), 가족지지(p=.000), 친구지지(p=.000), 교사지지(p=.000), 자존감(p=.000)이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R=.717, p=.000, R²=.514로 이들은 대상자들의 극복력을 51.4%를 설명하였다. 이 변수들이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하는데 유의한가를 검정한 결과 가족결속력(p=.009), 친구지지(p=.000), 자존감(p=.000)이 극복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β =0.139, t=2.637), 친구지지(β =0.152, t=3.710), 자존감(β =0.543, t=14.515)은 양의 상관관계로 가족결속력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표10).

<표10> 일반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n=408				
변 수	B	β	t	p
상수	13.683		3.201	.001
가족결속력	.243	.139	2.637	.009
친구지지	.692	.152	3.710	.000
자존감	1.754	.543	14.515	.000

②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과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관련 변수인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p=.031$), 스트레스 정도($p=.024$), 가족적응력 ($p=.002$), 가족결속력($p=.002$), 가족지지($p=.000$), 친구지지($p=.001$), 자존감 ($p=.000$)이 과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R=.746$, $p=.000$, $R^2=.557$ 로 이들은 대상자들의 극복력을 55.7%를 설명하였다.

이 변수들이 과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하는데 유의한가를 검정한 결과 친구지지($p=.016$), 자존감($p=.000$)이 극복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친구지지($\beta=.206$, $t=2.477$)와 자존감($\beta=.477$, $t=5.077$)은 극복력과 양의 상관관계로 친구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표11).

<표11>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n=84				
변 수	B	β	t	p
상수	24.510		2.306	.024
친구지지	.922	.206	2.477	.016
자존감	1.278	.477	5.077	.000

③ 문제음주 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관련변수인 가족적응력(p=.004), 가족결속력(p=.035), 가족지지(p=.003), 자존감(p=.000)이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R=.666, p=.000, R²=.444로 이들은 대상자들의 극복력을 44.4%를 설명하였다.

이 변수들이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을 설명하는데 유의한가를 검정한 결과 자존감(p=.000)이 극복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자존감(β =.489, t=3.899)은 극복력과 양의 상관관계로 자존감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표12).

<표12>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설명요인

n=54				
변수	B	β	t	p
상수	12.783		.571	.571
자존감	1.505	.489	3.899	.000

V.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극복력 수준을 규명하여 문제음주가 정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을 과음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극복력과 관련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부모의 문제음주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과 관련요인,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들의 극복력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수를 보면 일반가정 자녀 408명(74.7%), 과음주 가정 자녀 84명(15.4%), 문제음주 가정 자녀 54명(9.9%)로 문제음주 가정 비율이 김경빈의 연구에서 10.5%, 전수미의 연구에서 18.4%, 이현화의 연구에서는 14.3%에 비하면 적은 비율(9.9%)이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을 보면 17.2%로 높은 편이다. 이는 이미 중학교 때 대상자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학교 부적응현상인 학습능력저하로 실업계 지원율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극복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인 고등학생의 극복력 평균은 88.90 ± 13.41 로 나타났다. 이 평균점수는 이현화(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 극복력 점수

92.99±13.49점보다 낮은 결과였다. 또한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점수도 고등학생(86.18±14.90)이 중학생(87.36±14.38)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요소별로 보면 대인관계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내적 특성인 긍정적 자기이해, 자립성과 자원동원성인 대처양상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현화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은 이현화(2003)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와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세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존감도 문제음주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와 과음주가정 자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가족환경의 지지정도와 가족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들은 환경에 대처방법이 부족하고 가정 밖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한다는 Beavers와 Voeller(1983)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가정의 역기능적 상황 하에서도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의 극복력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극복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Harter(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홍근표, 1984)인 사회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일상적 생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적응방향을 결정하는(Brown, 1993) 자존감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함께 부모의 문제음주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이 보호요소로 작용하여 자녀들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힘 즉 극복력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커다란 의의로 볼 수 있으며,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중재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

대상자들의 극복력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 사회적지지 그리고 자존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녀들이 인지한 스트레스 정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주요변수를 비교해 보면 문제음주가정 자녀(50.15 ± 11.51)의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일반가정 자녀(55.31 ± 13.8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5$). 이는 기존의 연구(김소야자 외, 1989; 이상현, 1996; 박현선과 이상균, 2001; 민은정, 2001; 이현화, 2003)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의 음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떨어지며,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역할 변화에 혼돈을 가져와 적응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Olson, 1983; Beavers, 1983).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은정(1998)과 이정숙(1994)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족지지만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8$)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18.07 ± 3.62)가 일반가정의 자녀(19.43 ± 3.33)보다 가족의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과 이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문제음주가정 자녀(15.68 ± 3.98)가 과음주가정 자녀(15.48 ± 4.10)보다 교사지지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다. Bardis(1996)의 연구와 같이 부모가 아닌 타인성인 즉 교사지지는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존감에서는 과음주 가정의 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문제음주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와 과음주가정 자녀의 자존감 점수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현화(2003)의 연구에서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들의 자존감이 일반가정의 자녀들보다 낮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가 과음주 가정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들의 자존감형성에 긍정적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극복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볼 수 있다.

부모의 음주로 자녀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문제음주가정 자녀들(5.56±3.31)이 일반가정 자녀(1.60±2.67)과 과음주가정 자녀(3.75±2.84)보다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p=.000). 극복력이란 스트레스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능력(Luthar, 1991)이듯이 문제음주가정 자녀가 과음주 가정의 자녀보다 교사의 지지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Dumont와 Provost(1999)의 극복력이 있는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고 대처능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극복력과 관련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문제음주 가정 자녀들은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 과음주 가정 자녀들은 성별,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 학교성적, 일반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외의 활동유무, 학교성적, 존경하는 교사수, 부모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요인으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들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족결속력, 친구지지, 자존감이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음주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요인으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낮았다(p<0.05). 이들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친구지지, 자존

감이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 요인으로 가족적응력, 가족결속력, 가족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다($p < 0.05$). 이들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존감이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음주 가정 자녀들의 극복력이 흥미와 관심분야가 있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다는 결과는 문화적 활동이나 스포츠 등의 취미활동이 자존감을 키우고, 극복력을 향상시키며,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Gilligan(1999)의 연구결과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음주부모를 둔 고등학생 자녀들의 예방적 중재를 위해서는 흥미와 관심분야에 관한 교육과 이들의 관심분야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지도자 육성이 필요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요즈음 고등학생들의 일회성 즉흥적 대처방식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율성, 통제감, 도전성, 계획성, 인내심(자립성의 내용)이 낮아 부정적 생활사건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극복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 결과 일반 고등학생의 극복력 향상을 위하여는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와 자존감이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교육은 가정과 사회 및 학교가 하나 되어 상호 협조체제 하에 부모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 차원의 학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I. 결론과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극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일개 도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 여 학생을 6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도구는 부모의 음주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동희(2003)의 도구를 이현화(2003)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FACESⅢ, 안양희, 1988), 사회적지지 척도(양국선, 2001), 자존감 척도(이현화, 2003)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으며, 이중 미 작성 자료를 제외한 546부가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결과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자녀수를 보면 일반가정 자녀 408명(74.7%), 과음

주가정 자녀 84명(15.4%), 문제음주가정 자녀 54명(9.9%)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계열($p=.000$), 학교성적($p=.050$), 가족구조($p=.018$),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한달 가정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은 31-124범위에 있었으며, 평균 점수는 88.90($SD:13.41$)이었다. 극복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개념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대인관계 특성이 2.96($SD:0.49$), 개인 내적 특성이 2.90($SD:0.53$), 대처양상 특성이 2.77($SD:0.59$)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양상 특성중 자율성, 통제감, 도전성, 계획성, 인내심의 내용을 포함한 자립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2.73 ± 0.47).
4.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극복력은 문제음주가정 자녀(86.18 ± 14.90)가 일반가정 자녀(89.52 ± 13.42)와 과음주가정 자녀(87.60 ± 14.90)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44$).
5.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로는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은 문제음주가정 자녀(50.15 ± 11.51)가 일반가정 자녀(55.31 ± 13.85)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p=.034$). 사회적 지지는 세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지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의 평균은 문제음주가정 자녀(18.07 ± 3.62)가 일반가정 자녀(19.43 ± 3.33)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p=.020$). 자존감의 평균은 일반가정 자녀(26.31 ± 4.16)가 과음주가정 자녀(24.92 ± 4.5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027$), 문제음주가정 자녀(25.11 ± 4.84)는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정도의 평균은 일반가정 자녀 1.60($SD:2.67$), 과음주가정 자녀 3.75($SD:2.84$), 문제음주가정 자녀 5.56($SD:3.3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6. 대상자의 극복력과 관련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은 흥미와 관심분야의 유무($p=.002$), 과음주가정 자녀들은 성별($p=.038$), 계열

($p=.009$), 흥미와 관심분야 유무($p=.032$), 학교성적($p=.022$), 일반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외의 활동유무($p=.001$), 학교성적($p=.001$), 존경하는 교사수($p=.001$), 부모의 학력($p=.000$)으로 나타났다.

7. 일반가정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은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p<.01$), 가족결속력($p=.009$), 친구지지($p=.000$), 자존감($p=.000$)이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8. 과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은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p<.05$), 친구지지($p=.016$), 자존감($p=.000$)이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9. 문제음주가정 자녀의 극복력 관련요인은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가족지지,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자존감($p=.000$)이 극복력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일개 도시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고등학생에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자가 보고식 설문지인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에 의해 6점 이상-12점 이하를 과음주가정 자녀, 13점 이상을 문제음주가정 자녀로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임의 답변에 대한 제제방법이 없었고, 비교집단인 세집단의 표본의 수가 차이가 많아 문제음주 가정 자녀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문제음주가정 자녀를 위한 극복력 측정 도구가 없어 만성질환아를 대상으로 최근 개발된 극복력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문제음주가정 자녀들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제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극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 본 연구자는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문제음주가정 비율이 이현화의 연구에서의 14.3%에 비하면 적은 비율(9.9%)이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을 보면 17.2%로 높은 편이다. 이에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 및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극복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 2) 문제 음주 가정 자녀들의 극복력 관련요인으로 흥미와 관심분야가 있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분야에 관한 교육과 이들의 관심분야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3) 고등학생들의 일회성이며, 즉흥적인 대처방식은 자율성, 통제감, 도전성, 계획성, 인내심의 부족으로 부정적 생활사건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극복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 일반 고등학생의 극복력 향상을 위하여는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선생님의 지지)와 자존감향상이 중요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교육은 가정과 사회 및 학교가 하나 되어 상호 협조체제 하에 평생교육 및 예방 차원의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4) 문제음주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가정과 과음주가정 자녀들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기전에 따른 극복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동희(2002),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1995),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 선별검사의 개발 : 신뢰도 및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4(4) 1182-1193
- 김미향, 김영희, 김은희, 박미경, 서남숙, 박오장(2000),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과학논집 5(1), 15-27
- 김미혜, 엄예선, 이은주, 윤명숙(1995), 한국 알콜 중독가족의 특성 및 부부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24, 72-93
- 김 소야자, 이만홍, 황미희, 남궁기, 김병후, 김선아(1989), 알코올 중독환자 가족과 일반가족의 정신증상 발현율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6)
- 김송자(1998),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공동의존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용석(1999), 국내의 알콜 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콜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 김정득(2003),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성(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 아동복지학, 8, 35-58
- 박현선, 이상균(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 사회 복지학, 46, 118-144
-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 변인으로 ,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0(1), 121-132
- 봉은주(2001),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부담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균(1993), 문제성 음부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식(2002), 한국 성인의 문제음주행태 관련요인 분석, 한국 알코올 과학회지 3(1), 111-130

- 서지영(2002),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컴프렉스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국선(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채영(2000), 가족형 문제음주자와 비가족형 문제음주자의 비교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1(5), 223-254
- 윤채봉(2000), 징계처분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연구,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래, 김경빈(1994), 알코올 중독 환자 자녀들의 알코올 중독 위험성과 불안, 우울 및 부모-자녀 결합형태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3(5), 1063-1071
- 이경래(1995),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부정적 경험과 자존심 및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현(1996), 알코올 문제 가정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행과의 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이은희, 정면숙(2000), 간호이론의 이해, 수문사(서울)
- 이인숙, 박영숙, 송미순, 이은옥, Hesook Susie Kim, 박연화, 최경원, 진영란, 김대회, 이현숙(1999), 한국가족의 기능회복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60-569
- 이은정(1998), 알코올 문제가정의 성인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1998),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수문사(서울)
- 이은현, 정영해, 김진선, 송라운, 황규운(2002), 보건통계분석, 군자출판사(서울)
- 이정숙(1994), 문제성 음주 부모의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적응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화(2003),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은영(1996), 간호연구 개론, 현문사(서울)
- 임숙빈, 오희영, 박영임, 이은현, 이숙(2002), 예방적 정신간호를 위한 극복력(resilience) 개념의 탐색, 정신간호학회지, 11(3), 304-315
- 장수미(1992),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수미(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

- 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 전미영(1996),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전수미(2000),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문제음주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항석, 우정익, 소일영, 문유선, 이해리, 김종성(1994), 알콜 중독환자의 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 가정의학회지 15(12), 1088-1105
- 최윤정, 김혜련(2001), 알코올중독자 가정 자녀의 리질리언스에 관한 소고, 한국알코올 과학회지, 2(2), 35-40
- 홍근표(1984), 암환자의 소진 경험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verna, S. J.(1999), Resiliency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 Doctoral Disertation, Boston college
- Badis, P. J.(1996), Elimentary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and training needs pertaining to children of alcoholics in the Northwest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ntana
- Beavers, W. R. & Voeller, M. 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 8-98
- Brown, J. D. & Mankowski, T. A.(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icchetti, D. & Rogosch, F. A.(1997),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 the promotion of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97-815
- Daley, D. C. & Marlatt, G. A.(1997), Managing your drug or alcohol problem, Therapy Works.
- Delmonico, L. J.(1997), Stressful life events and resiliency ; coping responses, Social support resources, hardiness, and perceived childhood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sychology, San Diego.
- Dumont, M. and Provo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c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 Dyer, J. G. & McGuinness, T. M.(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Emshoff, J. G. & Price, A. W.(1999)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children of alcoholics, *Pediatrics*, 103(5), 1112-1121
- Egeland, B. & Calson, E. & Sroufe, L. A.(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17-528
- Fine, S. B. (1991)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 Who rises above adversity? 1990 Eleanor Clarke Slagle Lectu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6), 493-503
- Fisher, K. E.(1987),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Implications for the nursing profession, *Nursing Forum*, 4, 159-163.
- Fonagy, P. Steel, M. Steel,H. Higgitt,A. & Target,M.(1993),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silience,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5(2), 231-257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illigan, R.(1999) Enhancing the resilienc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public care by mentoring their talents and interest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187-196
- Harter, S. L.(2000),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 Recent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311-337
- Heinzer, M. M.(1995), Loss of a parent in childhood: Attachment and coping in a model of adolescent resilience, *Holistic Nursing Practice*, 9(3), 27-37.
- Hester, R. K. & Miller, W. R.(1995), *Handbook of alcoholism treatment approaches: Effective alternatives*, Allyn & Bacon.
- Holaday, M .& Terrell, D.(1994) Resilience characteristic and Rorschach variabl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evere burns, *Journal of Burn Care & Rehabilitation*, 15(5), 455-460
- Hussung, A. M. & Chassin, L.(1994), Substance use initiation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Attention protective factors, *Addiction*, 89(10), 1265-1276
- Jarmas, A .L. & Kazak, A. E.(1992) You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 Depressive experiences, coping styles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244-251
- Knowles, E. E. & Schroeder, D. A.(199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ons of alcohol abusers, *Journal of Studies alcohol*, 51, 142-147
- Krauss, J.(1993), *Health care reform: Essential mental health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Luthar, S. S. & Zigler, E.(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61(1), 6-22
- Mandleco, B. L. & Peery, J. C.(2000),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3(3), 99-111
- Melcher, R. L.(1997), Coping and resiliency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IV :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Sawyer, S. M.(2003),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 Palmer, N.(1997), Resilience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 A nonpathologic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Health & Social Work*, 22(3), 201-209
- Polk, L. V.(1997), Toward a middle-range theory of resil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3), 1-13
- Potter, A. E. & Williams, D. E.(1991), Development of a measure examining childrens roles in alcoholic famil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70-77
- Reiser, D. M.(1997), Denial, drinking behavior, and emotional symptomatology in daughters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 Rodney, H. E. & Rodney, L.(1996), An exploratory study of African collegiat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4,267-272
- Room, R(1990), Measuring alcohol consumption in the U.S. Methods and rationale, *Research Advances in Alcohol and Drug Problems*.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rason, L.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 Shaefer, A. J. & Moos, R.(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ch, and application*, Westport, CT; Applton & Lange
- Subby, R.(1984) *Inside the Chemically dependent marriage ; denial and manipulation*, Pampano Beach, Health Communication
- Tomori, M.(199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alcoholioic parents,

Adolescence, 29, 949-959

- Turnbull, E. M.(1995), Redemming the subject: transformation, self-care and the twelve steps of Al-An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Werner, E. E.(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 Werner, E. E.(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 Wolff, S.(1995), The concept of resilience, *Austr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 565-574
- Wormer, K.(1989), Co-dependency: Implication for Woman and Therapy, *Women & Therapy*
- Zvirbulis, L. M.(1999) Correlations of resiliency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involved or non-involved in Alateen, Al-anon, or Acoa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부록1>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N=546

특 성	구 분	일반가정의	과음주가정의	문제음주가	x ²	p
		자녀 (n=407)	자녀 (n=86)	정의 자녀 (n=53)		
		빈 도(%)	빈 도(%)	빈 도(%)		
성별	남자	222(54.4)	45(53.6)	24(44.4)	1.906	.386
	여자	186(45.6)	39(46.4)	30(55.6)		
학년	1학년	200(49)	41(48.8)	28(51.9)	0.161	.922
	2학년	208(51)	43(51.2)	26(48.1)		
계열	인문계	282(69.1)	56(66.7)	22(40.7)	17.120	.000
	실업계	126(30.9)	28(33.3)	32(59.3)		
종교	있음	253(62.2)	51(62.2)	30(61.5)	.898	.638
	없음	154(37.8)	31(37.8)	24(44.4)		
형제 순위	외동	55(13.5)	11(13.1)	10(18.5)	3.012	.556
	장남, 장녀	183(44.9)	32(38.1)	20(37.0)		
	장남, 장녀 아님	170(41.7)	41(48.8)	24(44.4)		
흥미와 관심분야	있음	357(87.5)	71(84.5)	49(90.7)	1.178	.555
	없음	51(12.5)	13(15.5)	5(12.6)		
학교활동의 활동	있음	172(42.2)	41(48.8)	25(46.3)	1.432	.489
	없음	236(57.8)	43(51.2)	29(53.7)		
학교성적	1-10등	142(34.8)	25(29.8)	19(35.2)	12.569	.050
	11-20등	143(35)	19(22.6)	15(27.8)		
	21-30등	82(20.1)	24(28.6)	15(27.8)		
	31등 이하	41(10)	16(19)	5(9.3)		
친한 친구수	없음	38(9.3)	5(6.0)	4(7.4)	4.108	.392
	1-2명	93(22.8)	27(32.1)	15(27.8)		
	3명 이상	277(67.9)	52(61.9)	35(64.8)		

주 : 무응답자수 제외

<부록1> 계속

N=546

특 성	구 분	일반가정의	과음주가정	문제음주	X ²	p
		자녀 (n=407)	의자녀 (n=86)	가정의자녀 (n=53)		
		빈 도(%)	빈 도(%)	빈 도(%)		
존경하는 교사수	없음	109(26.7)	19(22.6)	18(33.3)	1.980	.739
	1-2명	177(43.4)	39(46.4)	22(40.7)		
	3명이상	122(29.9)	26(31.0)	14(25.9)		
조부모 동거여부	한분이라도 동거	55(13.5)	8(9.5)	6(11.1)	1.114	.573
	동거 안함	353(86.5)	76(90.5)	48(88.9)		
가족구조	일반가정	368(90.4)	76(90.5)	42(77.8)	8.064	.018
	결손가정	39(9.6)	8(9.5)	12(22.2)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25(6.3)	13(15.9)	13(25)	28.366	.000
	고등학교 졸업	188(47.6)	39(47.6)	28(53.8)		
	전문대 졸업이상	182(46.1)	30(36.6)	11(21.2)		
어머니의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59(14.6)	22(26.8)	17(32.1)	16.749	.002
	고등학교 졸업	232(57.4)	41(50.0)	29(54.7)		
	전문대 졸업 이상	113(28.0)	19(13.2)	7(13.2)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25(31.7)	21(25.6)	5(9.6)	29.664	.000
	사무직	95(24.1)	14(17.1)	6(11.5)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68(42.6)	47(57.3)	38(73.1)		
	무직	6(1.5)	0(0)	3(5.8)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25(6.2)	9(11.1)	1(1.9)	12.716	.048
	사무직	39(9.7)	6(7.4)	2(3.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46(36.3)	35(43.2)	29(54.7)		
	전업주부	192(47.8)	31(38.3)	21(39.6)		
한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34(8.3)	7(8.3)	14(25.9)	24.469	.000
	101만원-200만원	110(27)	26(31)	21(38.9)		
	201만원-300만원	107(26.2)	22(26.2)	7(13)		
	301만원 이상	157(38.5)	29(34.5)	12(22.2)		

주 : 무응답자수 제외

<부록2> 극복력 척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 편차

내 용	평균평점± 표준편차	순위
1.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3.17±0.75	3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 낼 수 있다.	2.85±0.71	17
3.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76±0.74	22
4.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2.79±0.78	20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96±0.76	12
6.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99±0.81	11
7.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2.73±0.81	24
8.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2.93±0.69	13
9.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2.68±0.69	25
10. 나는 소중하다.	3.19±0.70	2
긍정적 자기이해 평균	2.90±0.53	
개인 내적 특성 평균	2.90±0.53	
11.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06±0.76	6
12.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3.02±0.66	9
14.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2.59±0.73	29
15.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2.75±0.72	23
16.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2.92±0.61	14
17.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2.61±0.69	27
19.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2.57±0.71	30
2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37±0.75	31
21.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2.79±0.69	19
22.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2.60±0.79	28
자립성 평균	2.73±0.47	
13.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3.03±0.72	7
18.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2.91±0.74	15
자원동원성 평균	2.97±0.59	
대처양상 특성 평균	2.77±0.45	
23.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2.64±0.73	26
28.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3.02±0.68	8
30.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2.83±0.81	18
31.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3.16±0.77	4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평균	2.91±0.59	
24.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명은 있다.	3.30±0.74	1
25.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3.06±0.69	5
2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2.77±0.80	21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2.99±0.76	10
29.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2.86±0.69	16
친밀성 평균	2.99±0.54	
대인관계 특성 평균	2.96±0.49	
극복력 전체 평균	2.87±0.43	

<부록3>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자녀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특 성	구 분	일반가정 자녀(n=408)			과음주 가정 자녀(n=84)			문제음주 가정 자녀(n=54)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221	90.1±14.16	.999	45	90.1±12.5	2.113*	24	90.6±12.5	1.193
	여자	186	88.8±12.5		39	84.7±11.1		30	82.6±15.9	
학년	1학년	199	90.1±13.1	.826	41	87.0±12.0	-.410	28	83.0±16.2	-1.637
	2학년	208	89.0±13.7		43	88.1±12.3		26	89.6±12.7	
계열	인문계	281	90.8±12.7	2.992**	56	90.0±11.9	2.694**	22	90.8±11.5	1.943
	실업계	126	86.6±14.5		28	82.7±11.3		32	83.0±16.2	
종교	있음	252	90.1±13.2	-.398	51	88.7±12.7	1.143	30	88.9±11.6	1.465
	없음	154	88.56±13.8		31	85.6±11.4		24	82.7±17.8	
형제순위	외동	55	90.8±14.1	0.688	11	80.9±15.8	1.991	10	86.9±10.8	0.239
	장남 장녀	182	88.7±12.1		32	88.4±6.5		20	87.7±13.5	
	장남 장녀아님	170	89.9±14.5		41	88.8±13.9		24	84.6±17.6	
흥미와 관심 분야	있음	356	89.8±12.9	-1.124	71	88.8±11.6	-2.186*	49	88.1±13.2	-3.248**
없음	51	87.5±16.4	13		81.0±13.0	5		67.2±19.0		

** p<0.01, * p<0.05, a, b, c : means with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é test

<부록3> 계속

특 성	구 분	일반가정 자녀(n=408)			과음주 가정 자녀(n=84)			문제음주 가정 자녀(n=54)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학교활동의	있음	171	92.0±13.7	-3.259**	41	88.8±13.0	-0.920	25	90.0±16.1	-1.782
활동	없음	236	87.7±12.9		43	86.4±11.2		29	82.9±13.1	
학교성적	1-10등	142	92.5±13.5	5.289**	25	91.5±11.8	3.394*	19	88.4±18.5	0.607
	11-20등	143	89.3±12.4		19	87.5±9.9		15	84.5±14.2	
	21-30등	81	85.3±14.1a		24	88.7±13.3		15	83.3±10.5	
	31등 이하	41	88.2±13.3		16	79.9±10.4a		5	91.6±14.3	
친한 친구 수	없음	38	87.6±15.9	3.093	5	80.2±15.6	1.511	4	90.0±10.4	0.240
	1-2명	93	86.9±13.6		27	86.2±12.9		15	84.4±14.2	
존경하는 교사수	3명 이상	276	90.6±12.9	7.203**	52	89.0±11.2	0.465	35	86.5±15.8	0.265
	없음	109	85.9±12.9		19	85.9±11.2		18	84.3±15.3	
조부모 동거여부	1-2명	177	89.7±13.5	-0.975	39	87.3±12.3	-0.377	22	87.8±13.2	-0.691
	3명 이상	121	92.5±12.9a		26	89.3±12.7		14	86.1±19.6	
가족구조	한분이라도 동거	55	91.2±15.4	1.131	3	85±16.1	1.510	6	85.7±15.3	1.319
	동거안함	352	89.3±13.1		81	87.7±12.0		48	90.2±11.1	
가족구조	일반가정	367	89.8±13.2	1.131	76	88.2±12.1	1.510	42	88.04±12.3	1.319
	결손가정	39	87.2±15.0		8	81.5±11.2		12	79.6±21.0	

** p<0.01, * p<0.05, a, b, c : means with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é test

<부록3> 계속

특 성	구 분	일반가정 자녀(n=408)			과음주 가정 자녀(n=84)			문제음주 가정 자녀(n=54)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아버지의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25	86.6±9.8		13	83.9±13.3		13	86.0±13.3	
	고등학교 졸업	187	88.0±13.9	5.439**	39	84.1±10.9	7.412**	28	88.8±16.5	0.710
	전문대 졸업이상	182	92.2±12.7b		30	93.9±10.5ab		11	82.7±10.2	
어머니의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59	86.1±14.9		22	84.5±11.7		17	86.8±16.2	
	고등학교 졸업	231	88.4±12.5	8.106**	41	87.7±12.6	1.967	29	86.7±15.3	0.315
	전문대 졸업 이상	113	93.5±13.4ab		19	91.9±10.4		7	81.8±12.2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25	90.9±13.7		21	89.0±16.8		5	85.6±10.0	
	사무직	95	91.7±12.1	1.759	14	86.9±8.9	.189	6	81.2±12.6	0.37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67	88.2±13.8		47	87.3±10.4		38	87.6±15.5	
	무직	6	88.2±7.9		0			3	89.7±15.3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25	90.2±18.6		9	93±10.5		1	96.0	
	사무직	39	89.7±13.9	0.517	6	83.6±8.8	1.842	2	82.5±17.7	0.186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46	88.5±12.6		35	85.3±11.7		29	86.4±12.5	
	전업주부	191	90.3±13.1		31	90.4±12.7		21	85.6±18.6	
한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34	85.0±15.4		7	82.7±9.5		14	85.6±11.8	
	101만원-200만원	109	85.7±12.4	6.906**	26	85.8±13.5	1.841	21	85.3±14.8	0.487
	201만원-300만원	107	90.9±13.3b		22	85.9±11.9		7	92.6±12.3	
	301만원 이상	157	92.1±13.4ab		29	91.6±10.7		12	84.7±19.8	

** p<0.01, * p<0.05, a, b, c : means with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é test

<부록4>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간호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했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에 소중히 이용되어질 것이며, 학문적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전공 권 종 선
(031-704-6700/E-mail : kwonjs57@hanmail.net)

■ 다음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가족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사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1.나는 부모님 중 한분이나 두 분 모두 술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3.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4.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외로움, 두려움, 불안,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5.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적이 있다.		
6.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던 적이 있거나 가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7.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나나 식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8.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9.나는 술 마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 적이 있다.		
10.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병을 감추거나 쏟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11.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와 음주로 인해 나나 가족에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12.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기를 바란 적이 있다.		
13.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내 책임이나 내 잘못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		
14.나는 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		
15.나는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친구나 집 밖에서의 활동을 피한 적이 있다.		

☞ 앞장에서 계속

내 용	예	아니오
16.부모님 중 한 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이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나를 끌어들이었던 적이 있다.		
17.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8.나는 술문제가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19.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을 매우 원망한 적이 있다.		
20.나는 술을 마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있다.		
21.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 받아본 적이 있다.		
22.나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3.나는 우리 집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내 친구들의 집처럼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24.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때문에 나와 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25.나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나는 술 마시는 아버지(또는 어머니)를 피하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술문제에 대한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반응(잔소리, 신경질, 싸움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적이 있다.		
27.나는 우리 집의 술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있다.		
28.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나 다른 친척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29.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다가 머리나 배가 아프고, 울거나,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다.		
30.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집안살림이나 일들을 대신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 낼 수 있다.				
3.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8.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9.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10. 나는 소중하다.				
11.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2.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13.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14.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15.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16.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17.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18.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19.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2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1.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22.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23.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24.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명은 있다.				
25.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2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28.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29.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30.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31.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 가까운 곳에 V표를 하세요.

내 용	거의 안 그렇다	가끔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2.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					
3.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그의 친구로서 받아들인다.					
4.우리 가족의 자녀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우리 가족은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일(예: 집안문제결정, 여행, 외식 등)을 한다.					
6.우리가족은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다르다.					
7.우리 가족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 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8.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일 처리방법을 때에 따라서 변경한다.					
9.우리 가족은 서로 같이 자유시간 갖기를 좋아한다.					
10.우리 집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잘못된 일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토론한다.					
11.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12.우리 집에서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					
13.우리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할 활동(예:명절, 제사, 생일등)에 있어서는 가족성원 모두 모인다					
14.우리 집에서는 정해 놓은 규칙이 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15.우리 가족은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예:취미, 오락 ,활동등)을 쉽게 생각해낸다.					
16.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대해 가족 성원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17.우리 가족은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과 상의한다.					
18.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19.우리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우리 집에서는 가족 중에서 누가 집안의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 다음은 여러분의 주위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칸에 V표를 하세요.(가족, 친구, 선생님 칸에 각각 표시)

1. ()는 나를 존중해 주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2. ()는 나를 염려해 주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3. ()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4. ()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주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5. ()는 내가 너무도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했을 때 도와주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6. ()는 중요한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족				
친 구				
선 생 님				

■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문항입니다.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 하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2.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3.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4.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해 낼 수가 있다.				
5.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나는 가끔씩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7.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9.나는 항상 실패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 다음 물음에 대해 가장 사실과 가까운 곳에 V표, 또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1. 다음은 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성별 : 남 _____ 여 _____
- 2) 학년 : _____ 학년
- 3) 계열 : 인문계 _____ 실업계 _____
- 4) 형제 :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째
- 5) 종교 : 불교 _____ 기독교 _____ 천주교 _____
없음 _____ 기타 _____

6) 최근 내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이든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예 : 운동, 여행, 컴퓨터 공부, 학교공부 등)

7) 학교생활외의 활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세요(특별활동 동아리, 종교모임, 학교밖 클럽활동 등).

2. 다음은 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8)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V표하고, 보기에 없는 경우는 ⑧의 빈칸에 써주세요.

- | | |
|-------------|--------------|
| ① 아버지_____ | ⑤ 외할아버지_____ |
| ② 어머니_____ | ⑥ 외할머니_____ |
| ③ 할아버지_____ | ⑦ 형제자매_____ |
| ④ 할머니_____ | ⑧ 기타_____ |

9)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 V표 하고, ③④⑤⑥에 답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도 옆에 적어 주세요.

- ___ ①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신다.
- ___ ②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
- ___ ③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 부모님 이혼 ___년전
- ___ ④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아버지 사망___년전
- ___ ⑤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 어머니 사망___년 전
- ___ ⑥ 양친 모두 안 계신다 : 아버지 사망___년 전, 어머니 사망___년 전

10)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정도를 해당란에 V표를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학 력	아버지	어머니	학 력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④ 전문대학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1)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해당란에 V표를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직 업
		① 전문직(예: 의료인,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 방송인, 예술가, 종교인 등)
		② 관리직 이상(예: 5인 이상 기업체 경영주, 5급이상 공무원, 회사 과장급 등)
		③ 사무직(예: 일반회사원, 5급미만 공무원, 은행원, 사회단체 직원 등)
		④ 판매서비스직(예: 소규모 자영업, 판매직 고용인, 서비스직 고용인, 외판원, 수위 등)
		⑤ 생산기술직(예: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숙련자/반숙련자, 노동자 등)
		⑥ 무직, (어머니의 경우)전업 주부
		⑦ 기타

12)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 | | |
|---------------------|----------------------|
| ___ ① 100만원 이하 | ___ ④ 약 301만원-400만원 |
| ___ ② 약 101만원-200만원 | ___ ⑤ 약 401만원- 500만원 |
| ___ ③ 약 201만원-300만원 | ___ ⑥ 500만원 이상 |

3. 다음은 나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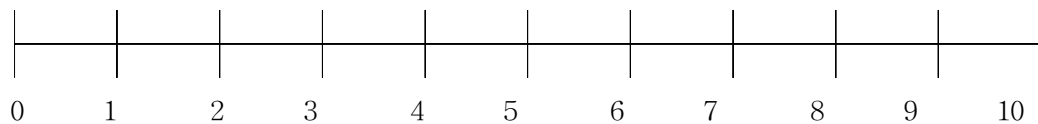
13) 지난 학기의 반에서의 내 성적은 ?

- _____ ① 1-10등 _____ ② 11-20등 _____ ③ 21등-30등
_____ ④ 31등-40등 _____ ⑤ 41등 이하

14)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나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 명

15)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생님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_____ 분

4.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설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숫자에 V표를 해주십시오. (0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이며, 숫자가 10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Problem-Drinking on Children's Resilience

Kwon, Jong Sun

Depart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is designed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their parents' alcoholic behaviors by providing proper in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lcoholic problem level and students' performance of developmental tasks and self-identity.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his theses are to identify the resilience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by the level of alcoholic problem of their parents, and to find out main factors of the relationship.

To measure the level of alcoholic problems of parents,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K) was employed. To measure the resilience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Kim's instrument(2003) revised by Lee(2003) was adopted. And in order to identify related factors of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FACES III, Ahn, 1988), Social Support Scale(Yang, 2001), and Self-Esteem Scale(Lee, 2003).

For empirical test, data were collected from 600 first and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enroll in an academic high school and an vocational high school of one city in Gyeonggi Province from September 20, 2003 through October 10, 2003. The survey forms were distributed to students and ask to fill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 were 546 valid responses out of 600 answer sheets. SPSS(WIN 11.0 version) was utilized for analyse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out of the total students investigated, students of non-drinking parents are 408(74.7%), stud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are 84(15.4%), and stud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are 54(9.9%).

The level of resilience by level of parents' alcoholic problems shows that the resilience level of stud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86.18 ± 14.90) seems lower than that of non-drinking(89.52 ± 13.42) or heavy drinking parents(87.60 ± 14.90). However,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144$).

Among the related factors, the self-esteem of stud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is lower than that of non-drinking parents significantly, and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of children of problem-drinking parents is lower than those of non-drinking parents significantly. The social support is found out to be an non-significant factor.

The related factors to resilience of students of non-drinking parents are the participation of after-school activities, school record, the number of

teachers they respect, education level of parents,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 related factors to resilience of stud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are gender, the participation of the after-school activities, school recor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 related factors to resilience of stud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are the participation of after-school activities,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refore, the self-esteem is a predictive factor of resilience in all of three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curriculum which leads to teach the students to be independent, to have a sense of duty, to make well-planned preparations for their future, and to have a better self-esteem in order to improve their ability of resilience. Seco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tailored to their interests and needs. Finally, steady research efforts should be dedicated to improve school curricula for the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resilience,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social support, self-esteem